

2011

인쇄업계

10대

뉴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01. 인협 제40대 회장에 김남수 회장 취임



지난 2월 24일 열린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홍우동 회장의 뒤를 이어 제40대 회장에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가 선출됐다. 김남수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저를 제40대 회장으로 인준해 주신 데 대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0대의 젊음과 패기를 갖고 우리 업계의 난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남수 회장은 “인쇄가 IT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 설 것이며 디지털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인쇄환경은 단체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업그레이드하여 인쇄업계가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 인쇄문화교류를 활성화 하고 산업시찰 및 시장개척단을 운영, 인쇄수출산업의 첨병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수 회장은 “앞으로 업계의 참신한 인사와 학계의 석학을 중심으로 싱크 탱크를 발족, 인쇄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수 회장은 195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청아문화사를 설립한 이래 인쇄업계에 몸담아 왔다. 인쇄업계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와 지난 2006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책자인쇄부회 간사장을 시작으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2007년), 대한인

쇄문화협회 부회장(2008년), 인쇄물수출협의회 회장(2009년) 등을 역임했으며 우수한 인쇄물을 제작,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001년), 산업자원부 장관상(2006년), 서울시장상(2008년)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02. 인쇄문화의 날 · 서울인쇄대상 기념식 성료



지난 9월 15일 2011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백성운 국회의원,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종규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이완표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이형규 부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이사장,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대표 등 귀빈 및 전현직 단체장, 김경수 팩컴코리아 대표 등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인쇄 및 관련 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 대한인쇄기술협회(회장 김진배)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경수 팩컴코리아(주) 대표이사가 문화포장,

05. 인협, 인쇄수출지원센터 개설



인협은 올해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인쇄물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쇄수출지원센터를 인협 내에 설치했다. 인쇄물수출지원센터는 수출상담, 해외시장 현황분석, 정보수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홍보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차이나프린트, 북엑스포아메리카 등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한국인쇄관 조성을 통한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인쇄수출지원센터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연계하여 인쇄물 수출증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내 인쇄문화산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인쇄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한국어, 영문, 중문, 일문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데 이어 프린트차이나, 북엑스포아메리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전시회 참가, 인쇄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에는 일본 도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수출에 관심은 있어도 어려운 절차와 어두운 해외 정보 때문에 주저하던 인쇄업계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6. 키페스 및 국제인쇄포럼 등 국제행사



제18회 국제인쇄산업대전(KIPES 2011)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렸다.

KIPES2011은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23개국 2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만여㎡의 규모로 개최됐다. ‘디지털인쇄로 열어가는 그래픽세상’을 주제로 내세운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IT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쇄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디지털인쇄업체들의 최신 제품과 한층 다양해진 국내의 후가공 관련 솔루션, 고품질 인쇄를 지원하는 다양한 특수지, 컬러매니지먼트 제품 등 인쇄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인쇄방식과 인쇄공정의 디지털화로 종이뿐만 아니라 금속, 플라스틱, 목재, 타일, 아크릴 등 소재에 구애됨이 없는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소재의 고급 인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친환경 미래 인쇄기자재들도 선보였다.

또한 ‘세계 인쇄시장의 트렌드와 비전’을 주제로 인협이 주관한 국제인쇄포럼은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의 4명이 ‘한국 인쇄산업 동향과 수출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해 250여 명 청객의 호응을 받았다.

07.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공청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9월 26일 호텔PJ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 검토한 5대과제 20개 사업을 제안했다. 5대과제는 △인쇄문화산업진흥 인프라구축 △친환경인쇄 및 품질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시장혁신 △직지홍보 및 인쇄문화가치 확산으로 구분했다. 5대과제의 세부사업은 인쇄문화산업진흥 인프라구축 부문에서는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인쇄박물관 건립지원 △인력양성사업 지원 △정보인프라 및 연구사업 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으며, 친환경인쇄 및 품질제고 부문에서는 △친환경인증제 도입지원 △인쇄품질 표준화사업 지원 △그래픽아트디자인관리사제도

도입 등을 세부과제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강화 부문에서는 △인쇄수출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한류활용 인쇄물 수출지원 등을, 기술개발 및 시장혁신 부문에서는 △인쇄기술 개발지원 △인쇄공용서체 개발지원 △인쇄설비 현대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직지 홍보 및 인쇄문화 가치 확산 부문에서는 △직지 및 인쇄문화 국내외 전시회 지원 △직지 문화상품 개발 지원 △국제 인쇄산업전시회 개최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08. 인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지난 9월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추려낸 후에, 16개 업종을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고려한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발표한 1차 선정 품목 16개 가운데 인쇄업을 포함한 순대, 청국장, 간장, 막걸리 등 11개 품목은 '확장 자제' 품목으로 선정됐다.

동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이제부터 인쇄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09.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지난 5월 31일, 40여년 간 시행해오던 '인쇄기준요금' 제도가

전격 폐지되었다. 지난 1976년 10월에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인쇄물가격에 적용될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1977년부터 시행된 인쇄기준요금은 이후, 해마다 시중거래가격 조사 또는 원가계산에 따라 전년 대비 변동폭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이후에는 인쇄기준요금은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상되더라도 2%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인쇄장비의 발달로 작업효율이 향상되어 인쇄비 하락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 조달청과 고가 인쇄장비의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디자인(조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원부자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쇄업계의 의견이 쉽게 일치를 보지 못해 새로운 인쇄기준요금을 발표하지 못했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비롯한 각 인쇄단체들은 '인쇄기준요금'의 폐지를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유예시켜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업종을 위축시키고 업체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인쇄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인쇄재료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불안 확산

각종 인쇄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인쇄업계에 주

름살을 더했

다. 지난해 원

부자재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

던 인쇄용지가

안정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었지만, 다른 인쇄 원

부자재의 가격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처럼 2~30%씩 급상승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환율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남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여파를 넘어 설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수입물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인쇄원부자재의 가격의 안정세를 저해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쇄물 수출의 주된 대상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도 금융위기의 우려 속에서 저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